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2호 【루게 제 24370호】 주제 102(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사설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는 용사들의 승고한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자

령도자와 인민, 최고사령관과 병사들 사이에 동지애, 전우애의 승고한 세계가 꽃피어 펼쳐지는 위대한 선군시대에 또 하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새 전설이 태어나 천만군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투임무수행중 장렬하게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어 한명 한명의 묘를 찾아주시고 동무들의 묘주에 자신께서 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존함을 묘비에 써놓도록 하시라는 뜻을 당부하셨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지닌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이다.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불굴의 용사들의 고귀한 정신세계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해군용사들이 해군은 항로는 당과 수령을 따라 언제나 끝까지 달려온 수령결사옹위의 항로, 고결한 충정의 항로였다. 천만군민을 사랑의 한복에 안아 열과 정을 부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용사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었다고 최대열전지역에서 나가시어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신강령은 그들의 항로에 깊이 새겨진 수령결사옹위의 표표였다.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화하였기에 그들은 몸은 비록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신참호를 지켜냈다는 자각을 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바다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혁명정신의 값높은 영예와 영생하는 삶이 있다는 것, 이것이 동해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실천으로 보여준 고귀한 철리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웅한 해군용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적신념과 깨끗한 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선군시대의 진짜배기 출신, 열렬한 수령결사옹위 투사가 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사랑과 뜻, 생사를 함께 하는 진정한 전우, 함께된 동지가 되는 길이 있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심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자기 초소에 대한 열렬한 애착과 자기 임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은 레사롭게 흘러가는 정상적인 군무생의 활로에 뚜렷이 나타나는 법이다. 지난 10월 중순 전투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합참으로부터 모든 해병들이 자기의 전투초소를 어떻게 차지하였는지 자기 임무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하는 것은 그들이 남긴 유물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전투임무수행과정에서 지을 수 없는 생의 흔적을 남긴 동해의 용사들의 위훈은 우리도 애착, 맡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를 굳건히 지키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동해의 용사들은 조국의 바다를 자기 살바치려만 아끼고 사랑한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애국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자기 고향에서부터 시작되고 자기 부모자리에 대한 사랑,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함축되며 그것이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 진정한 애국심, 조국애이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바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 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승고한 혁명정신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며 나라와 민족의 고귀한 정신재보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웅한 해군용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적신념과 깨끗한 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선군시대의 진짜배기 출신, 열렬한 수령결사옹위 투사가 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사랑과 뜻, 생사를 함께 하는 진정한 전우, 함께된 동지가 되는 길이 있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태어난 고향과 직무, 복무년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할지 초소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바다의 불사조들이다. 자기의 합선,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구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을 그들이었기에 위훈의 자랑도 많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나는 각하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에서의 시정운동 43돐에 즈음하여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귀국정부와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면서 각하께서 언제나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계속 강화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가장 승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3년 11월 17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로씨야인사가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로씨야에서
야브롬그라쉴루브로에크르유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
책임회사 총사장이 선물을 드릴 것을 총사장 엔.엔.헬겐이 1일 로씨야 본사기자

김정일 동지 회고 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 동지 회고 마차르 위원회가 11일 부다페스트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차르 동당 위원장 류트메르 즐라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적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장군 회고 에리트 위원회가 12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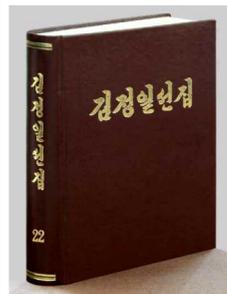
회고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2권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대성한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2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선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2(2003)년 8월부터 주체95(2006)년 11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46권의 로작이 수록되어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발표하신 로작들에는 선군의 위력을 더욱 높이 펼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 방침들이 제시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함없이 계승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들에서 《(저, (너)의 전통을 숭고하고 수하고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길이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위, (우)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에서 《(저, (너)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정론

생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마음은 성스러운 이 물음앞에 스스로 나서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묘주가 되어주신 용사들에 대한 생각이 낮아나 밤이나 가슴을 치는데 누구인들 이 물음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을것인가. 우리 시대의 영생이 남기는 충격과 여운은 이처럼 거대 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위해 바친 군인들의 생은 끝나지 않으며 당기밭과 함께 영생한다는 삶의 진리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새겨주고싶은것이 나의 심정입니다.》

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빛나는 최후가 남기는 량심의 자욱이었다.

망망대해에 력사에 보기 드문 격렬한 이야기를 터쳐놓고도 아무 일 없었던듯 파도는 예전대로 쉼없이.

모래밭에 자욱을 찍으며 썩썩하게 함선에 울랐던 그날의 해병들이 돌사진안에서 단정한 군복차림으로 조국의 바다를 보고 있다.

지휘관의 부름에 금방이라도 《엠펜!》, 《엠펜!》하며 대오에 나설것만 같다. 얼마나 고귀한 모습들인가.

하나같이 멋지게 생기고 구김살없이 단정한 품격을 가진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나하나의 대들들을 쫓아보시며 영생을 축복해주신 용사들의 돌사진일에 새겨진 여러가지 글자들이 가운데는 보름사람들의 희생에서 찾아볼수 없는 특이한것이 있다.

이름과 태어난 날, 희생된 날자가 새겨져 있는 비둘에는 2013년 10월 13일이라는 날자가 새겨진 돌사진일이 기록되어 있다.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용사들의 이름과 생일을 비둘에 쏘아박아가던 조각가들이 이 똑같은 날자를 사진필에 새기면서 눈물을 쏟은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해병들은 살아도 죽어도 운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것이 하는 것을 생동한 현실로 체험하면서 인민들은 조선인민군 해병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되었다.

기록에는 심오한 진실이 있다. 그들은 2013년 10월 13일 같은 군합에서 똑같이 장렬하게 희생된 조선의 용감한 해병들이었다. 그들은 위대한 당의 품에 안기우려다가 죽음이라는 말을 세상에 남긴것이 아니라 참된 죽음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삶을 찾은 김정은시대의 생의 창조자로 되었다.

최후는 인간이 남기는 마지막모습이다. 그 마지막모습에 한생의 날과 달들이 비끼기도 한다.

온 바다를 뒤져서라도 전우들의 시신을 찾아내라고, 그들의 시신을 다 찾아내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수 없다고 한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받고 깊고깊은 물속에서 잠수병들이 찾아낸 유물들속에 그들의 최후를 보여주려는 소중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찢기고 부서진 유물들, 전물에 녹고 바위와 모래에 꺾히운 유물들, 그가운데는 어느 한 시신의 팔목에 고리가 든듯 걸려있는 수직시시진기도 있었다. 형체를 알아볼수 없게 된 사진기였지만 거기에 끼워져있던 기억기는 끝끝내 재생되었다.

폼푼터에 앉은 부대일군들은 가슴을 조이였다.

마우스가 움직이는데 따라 한장한장 사진들이 펼쳐졌다.

전투입무를 받고 출항하는 함의 선수부대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낮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다음에는 함선의 선미부분... 구명복을 입고 절감모를 쓴 해병도 보이고 기체를 손에 쥔 병사도 보였다. 안개 낀 바다의 앞을 예리하게 주시해보고있는 전우들의 모습도 그대로 보였다.

다음장면이 펼쳐졌다. 해도실이었다.

움푹하게 적잡수함을 찾고있는 해병들의 작업모습이 펼쳐졌다. 해군모자를 쓰고 움푹하게 보고있는 지휘관도 보이고 구명복을 입은채로 기체의 움직임을 긴장하게 보고있는 군인도 보였다.

네번째 화면이 펼쳐졌다. 해도작업을 하고있는 부함장의 옆모습이 나타났다. 보통때처럼 군관복을 단정하게 입고있었다. 폼푼터화면을 보는 그의 눈길은 긴장하면서도 침착하였다. 한손에는 삼각형의 자를 쥐고있었다. 마지막순간까지 자기 입구에 총실하였던 그 모습, 너무도 생생한 얼굴이었다. 사진에는 촬영한 시간들도 기록되어있었다.

11시 7분... 11시 15분! 그 수자를 읽는 순간 모두가 입술을 깨물었다.

마우스가 떨리고있었다. 눈물방울들이 똑똑 떨어지고있었다.

《부함장동무!...》, 《동—무—들!...》 사진속의 전우들은 대답이 없었다.

바람새찬 바다우에서, 격랑치는 파도속에서 고락을 나누던 혁명전우들이었다. 나의 고향은 강연도 범둥이라고 자랑하던 군관도 있었고 대홍단이 나의 고향이라고 자랑하던 군관도 있었다. 군복을 입은지 1년밖에 안되는 18살의 애젊은 병사도 있었다. 흔들리는 배에 있으면 편안하고 목지에 서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웃으며 말하던 병사였다.

바다는 아름다우며 광만의 대상만이 아니다.

생사가 가장 명백한 곳이다. 헤일이 일어나고 격랑이 일어날 때면 삶과 죽음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바로 바다인것이다. 군합을 탄 해병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분분초초마다 결전의 마당이다. 어느 물밑에서 어떤 정황이 발생하지 예측할수 없는 전투장인 것이다. 결전의 시각 군합에서 뛰어내리던 죽음이 기다리는 수천길 물속이다.

바다에는 숨을 쉴곳 없고 피할 곳도 없다. 판거리결전의 시각에 죽음앞에 가장 정직하게 서야 하는 곳, 죽음앞에 가장 끝바로 서야 하는 곳이 바로 바다이다. 평범하게 흘러가던 하루가, 갑판에서 웃고 떠들던 생활이 순간에 죽음으로 변할수도 있는, 한순간에 다같이 죽을수도 있는, 그야말로 삶과 죽음이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전투장이 바로 군합인것이다.

바로 그런 곳에서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에서 동지애의 꽃을 피우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정다운 동지들이었다.

전대의 마당에는 그들이 물에 내릴 때마다 애써 가꾸어온 참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있었다. 통일된 조국의 남해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류달리 애지중지 가꾸어온 나무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전투입무수행중에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

깊고깊은 바다물밑에서는 또 한점의 귀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 어느 군인이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보관하던 금속판이었다. 그 판에는 풍풍 뚫 모양체로 영겨져있는 비닐봉지가 있었다.

비닐봉지를 자세히 보면 지휘관들은 놀랐다. 그안에 흰종이가 들어있었던것이다. 종이를 조심히 꺼내던 부대의 정치일군은 심장이 똑 멎는것만 같았다.

《임당청원서》라고 쓴 글씨가 나타났다. 《임당청원서》라고 쓴 글씨가 나타났다. 《임당청원서》라고 쓴 글씨가 나타났다.

《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선군혁명명령도로 빛내주시는 사회주의조국에서 태어나 근심걱정이라는 말을 모르고 11년제의무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으며 당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어렵고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에 이른세백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 전진해가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에서 선군혁명명령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 파정에 오직 총대로서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최전선 초소에 자원입대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감격도 새로운 2006년 6월 19일 갈매기도 단장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른 새벽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중대에 모시는 최상위대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으며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까지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해병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고 조국의 동해갑문을 우리들에게 맡기신다는 믿음을 주실 때 추우치는 걱정을 누를줄 없었고 이에 충정과 기술로써 보답하리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현대의 요구에 맞게 상병차지료를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야전군의가 되기를 바라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학습과 조직생활, 군무생활에서 모범이 될것을 굳게 결의하면서 조선로동당에 입당할것을 청원합니다.

35살의 귀중한 글줄들을 마지막까지 잃고난 전우들은 꿇었다.

《군의동지!—》 야전군이라는 글자를 보고 임당청원서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수 있었던것이다.

임당청원서도 임당청원서를 통해서 때여놓지 않고 살아온 조선로동당원! 얼마나 고귀한 생인가.

인간의 최후가 후세에 남기는 이야기들은 각이하다.

한손에는 권총을 틀어쥐고 다른 손에는 풀뿌리를 틀어쥐고 희생된 빨치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중기압축을 턱으로 누른 채 숨진 공화국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번에 희생된 동해의 용사들은 불분명한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사람들도 아니며 어둠을 안고 적함선에 돌격해간 자폭용사들도 아니다. 정상적인 군무수행중에 전투기술기체를 다루던 모습들로 군합우에서 희생되었다. 초소를 지키는 평시의 걸음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영웅성에 대하여 말하려는 사람들은, 력사적위훈에 대하여 말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다. 그것이 과연 특수한 희생이였는가?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낳은 영성의 화폭은 바로 이 물음과 함께 만사함을 울리고있다.

말은 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걸음에서 맞이한 최후! 바로 그것을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최후로 영성의 언덕우에 높이 세워주신 위대한

인생관, 동지애의 세계가 우리 심장을 격동시킨다.

자기 초소를 지키는 책임적인 걸음에서 맞이한 용사들의 최후가 왜 이처럼 빛나는 것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스승을 우리들속으로 우리가 맡은 임무가 어떤것인가를, 우리모두가 서있는 초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피는 흘린것만큼 값지다고 하였다. 바다의 넓은 용사들이 걸은 길에는 군복을 붉은 피로 적서본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조선혁명의 길에 피와 목숨을 바친 선령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있다.

자기 구간마다에서 군합의 요소들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던 모습, 해도를 그려나가던 모습, 사진기고리를 팔에 매달고있었던 모습, 조선로동당 임당청원서를 몸에 품고있었던 모습...

고귀하다. 원추와의 판거리결전에서 몇 동이의 피를 흘린 용사들의 걸음과 그들의 걸음이 다르단 말인가. 너무도 똑같다. 그들은 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당원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감에 충실했으며 생의 모든 분초마다에 자기가 맡은 구간을 충실했다. 그들은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것을 알수도 없었던 시각에도 죽음을 눈앞에 둔것을 알고있었던 것이 걸음마다 최후의 결전에 살았

다. 혁명입무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긴 가치 없고 고지식하고 순박한 마음이 평범한 생활의 대 걸음. 매 시간마다에 공백이 없이 딱 차있었다. 빛나는 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고귀한 생이라는것을 한점한점의 돌사진으로, 용사들을 영성의 언덕에 눈부시게 세워주신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력사에 가르쳐 주시였다.

이 세상에서 조선인민군 군인들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며 가장 귀중한 전우로, 동지로 품에 껴안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인간이신 그이

는 이 시대의 빛나는 삶의 창조자이다.

이름도 없던 평범한 해병들을 항일혁명 투사들의 이름과 나란히 영성의 언덕에 세워주신 위대한 그이를 생각하면 고마움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심장의 노래가 뜨겁게 분출된다.

생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이것을 생각할 때면 한송이의 꽃을 들고 용사들의 묘를 찾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엄한 모습이 눈앞에 어려울것이다.

해병들의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있는 그곳에 이 세상에서 다시 생김 없는 《병사들》을 꾸려주신 위대한 인간 김정은동지를 생각하면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고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용감성과 신심이 온몸에 융용된다.

군인들이여, 인민들이여, 우리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자.

《요 주 김정은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묘소에서 이런 글발

을 찾아본적 있었는가. 그 어느 력사에 한 나라의 명도자가 병사들의 묘주가 되어 귀중한 존함을 묘소의 돌에 아로새겨본적이 있었는가.

용사들의 돌사진위에 조용히 새겨져있는 그 붉은 글발을 쫓아보니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너는 김혁 나는 성주라고 글발을 쓰시던 어비이수령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희

생된 동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며 눈물을 쏟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상이 떠오른다.

그처럼 사랑하던 해병들이 희생된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어 잠 못 이루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멀고 험한 길을 달려오시어 한명한명 용사들의 돌사진을 쫓아보시며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하시던 그 말씀.

사랑하는 아들들과 남편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과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고 하신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가슴저미게 어려온다.

오래동안 용사들의 걸음 떠나지 못하고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새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놓아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소! 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한 그 음성이 귀전에 울려온다.

너무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수 없고 밤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푸짐한 식사 한끼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떠나 보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것 같다고, 나는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마지막 한사람까지 시신을 다 찾아내어 장례식을 잘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불덩이처럼 심장을 달구어준다.

천히 그리신 합장묘와 묘비의 형성도안과 돌사진을 내려보내주신 그이, 쏟아지는 눈물을 견딜수 못하시며 한사람, 한사람의 사진을 끄고꼬라라 몸소 만드신 천연색사진들을 액틀에 넣어 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싸서 내려보내주신 우리의 원수님, 그들이 복무하던 부대가까운 곳에 자리를 잘 골라 합장묘를 써주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묘비를 잘 만들어 세우고 묘물에는 그들의 돌사진을 불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전우들이 그들을 믿지 않고 추억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던 뜨거운 말씀이 울린다.

가슴에 용사들과 연결하는 자리에서 용사의 안해는 이렇게 눈물의 고백을 터치기 않았는가.

《효정이 아버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고싶다고 늘 말하던 당신이 원수님께서 용사묘에 오시어 꽃송이를 진정하실 때,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으라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왜 단 한순간만이라도 일어나 원수님께서 안고계시는 상일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했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 나는 결코 남편을 잃었다고 우리 해병들이 생을 마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은 그토록 사랑하던 함을 타고 저 푸른 바다를 달린다고, 경애하는 원수님 주신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투항로를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수수억년세월 사람들이 다 알수 없는 가장 진실한것을 소리없이 품고 품으며 끝없이 출렁이였다.

푸른 물결 출렁이는 저 무한대 바다에는 인간이 상상할수 없었던 하나의 위대한 진실이 새겨져게 되었다.

죽음을 딛어내는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빛나는 최후를 마친 병사에게는 죽음이란 있을수 없다는 영성의 진리를 현실로 만들어주신 위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조선인민군 군인의 존엄과 영에는 백천배 높여졌다.

보시오!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잘생겼는가고 하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그러도 소중하게 뇌리에 새기고 또 새기신 용사들이여, 온 세계의 해병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대들을 부러워하리라.

생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오직 조선사람들만이 이 물음에 긍지높이 대답할수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에 안긴 우리의 생, 그것은 위대한 인간과 죽어서도 맺어지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생은 위대한 인간이신 김정은원수님과 죽어서도 맺어지는 혈연의 정이다. 이 혈연의 정을 끊어놓을 힘은 세상에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바다에서 희생되는 군인들이 있을수 있고 희생의 대가로 물질적 보상이 차례질수도 있다. 그러나 의무감이나 인정과 동정으로 계산할수 없으며 돈으로는 더욱더 계산할수 없는 천금주고 살수 없는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희생된 병사들의 묘주가 되어주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우리가 타고난 영광스러운 생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무변광대한 하늘길에서 휘부러져도 끝까지 찾아내어 영성의 언덕에 세워주시는 위대한 품, 수천길 물속에서도 끝까지 찾아 인민들의 품에, 로동당의 품에 안겨주시는 위대한 사랑속에 사는것이 우리의 생이다.

하기에 우리는 머리를 높이 들어 자부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영성의 새 주인공들을 배출한 동해의 푸른 물은 평화의 시기에 또 장렬한 희생이 있을수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오직작봉마루의 투사들처럼 영성의 언덕에 오를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보여 주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자. 사람이 살아서 백년을 살겠는가. 눈뜨고 살면서도 조국을 위해 백년을 살아가야 한 폭자석에서 배드루미 배넌을 살아 무슨 보람이 있었는가. 군복과 배낭과 수첩이 재산의 전부였던 용사들, 자그마한 갑판을 조국이라는 거대한 트랙으로 여긴 용사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이었던가.

전투정황이 생기면 부대에서 제일먼저 찾은 전투단위가 바로 용사들의 합선이었으며 남보다 먼저 출항하고 위훈의 자람을 안고 제일 선함으로 군함에 들어선 합선이 그들의 전투합이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가.

수천수만 아들딸들의 아름다운 생의 자욱으로 이어지는것이 조국이다. 위훈의 자욱들이 합치고합쳐져 우리 조국을 전진하며 변영한다.

위대한 선군정장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용사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따라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가는 우리의 행군길은 천만군민이 어께걸고 웃으며 가는 변영의 길, 승리의 길이다.

용사들이여, 믿으라. 확신하라.

그대들이 바라던 조선통일의 날을 기어 이 앞당겨오리라. 미제침략자들과 비굴하고 추악한 괴뢰역적들을 력사의 오물장에 쏟아버리리라.

그대들이 바라던 우리의 미래를 우리자신의 손으로 눈부시게 가꾸어놓으리라.

조선혁명가들의 생이란 바로 이런것임을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으로 가슴후련히 력사에 증명하리라.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승 미 란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용사들을 찾는 조선인민군 해병들 본사기자 김중훈 찍음

선군령장의 전우들은 영생한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동해의 해군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어 혁명적전우애의 숭고한 화폭을 수놓으신 소식은 지금도 우리 인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격동시키고있다.

며칠전 우리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켰으며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묵묵히 집행한 바다의 용사들이 얼마나 위대한 전우애의 세계에서 값높은 영생의 삶을 누리려가 하는것을 전하고싶어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것이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푸른 하늘에서는 유난히도 밝은 햇빛이

쏟아져내렸지만 용사들의 고귀한 넋을 안고있는 조국의 바다는 그들의 위훈을 전하는 듯 위엄있게 설레고있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이면 귀항하는 함선들을 반겨맞으며 밝은 빛을 뿌려주던 등대도 용사들에게 경의를 보내는듯 류달리 승명해보였다. 아이들의 가벼운 발걸음에도 모래소리를 내는 백사장을 바라보노라면 이곳에서 명곡 《조국찬가》를 부르며 조국의 바다를 목숨으로 사수해갈 굳은 결의를 다지던 해병들의 모습이 어찌오고 은은히 들려오는 배고동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아도 전투명령을 받고 긴급출항하는 용사들의 함선이 북쪽 나라날것만 같아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지난 11월 1일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해전에 만나시었던 낯익은 병사들의 모습을 그들의 묘에서 보시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으랴 하는 생각이 절로 눈곱이 젖어들었다.

우리의 눈빛에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부대의 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날 희생된 용사들이 보고싶으시어 우리 부대를 찾아주시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용사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대를 찾으신 것은 오진시간이 퍼그나 흘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마중 나온 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 용사들의 묘부터 찾아보자고 하시며 그곳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차를 세우신 곳은 묘앞에서 얼마간 떨어진 장소였다. 사실 부대지휘관들은 그이께서 오시면 묘를 인차 돌아보실수 있게 하기 위해 주차장을 앞채 단우에 건설하였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희생된 용사들이 누워있는 묘에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실수가 없으신듯 묘지주 입구에 차를 세우시던것이였다.

부대지휘관들은 떠나간 전사들을 위하시느

그이의 한없이 고매한 품모에 머리가 숙여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몸소 멀리 평양에서부터 희생된 용사들을 위해 꽃송이를 준비하여가지고 오시어 그들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는 그들의 눈앞에 세상에 없는 용사묘가 솟아나게 된 전설같은 사연이 파도쳐왔다.

지난 10월 중순 어느날 미제와 괴뢰들이 조선남해와 동해에서 감행하고있는 대규모적인 해상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하여 긴급한 전투근무를 수행한 구잠함 233호는 교대도중 또다시 긴급출동명령을 받게 되었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위에 참가하게 되어있던 립정관, 김경일동무들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해병들은 긴급하게 조성된 적정을 주시하며 지체없이 출항의 뜻을 올렸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이 준 전투명령을 수행하는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다.

해군부대 용사들이 전투임무수행중 장렬하게 희생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시어 해당 부분 일군에게 몇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며 너무도 억이 막혀 가슴이 터져올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천길바다밑을 다 뒤져서라도 희생된 용사들의 시신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무조건 찾아내어 장례식을 잘해줄때 대 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리고 용사묘의 형성안을 여러차례나 보여주시면서 그 위치까지 정해주시고 힘있는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였으며 판간형식과 건축같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묘비들에 용사들의 생전의 모습을 새긴 돌사진을 붙일때 대한 지시를 주시고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불타듯 뜨거운 사랑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지휘관들과 해병들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의 절정에 오르게 되었다.

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평범한 군인들의 위대한 세계를 펼친 선군령장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절어오르는 격정속에 그이의 뒤를 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희생된 용사들의 묘비를 하나하나 구제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사진이 아주 잘되었다고, 모두 젊고 활활하고 잘났다고 하시며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격정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너무도 생동하고 열정적인 모습들이 사진속에서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몇 초보의 군관 장세철동무며 늘 말없이 웃는일민 플라하린 초기부사관 엄준삼동무, 함의 막방이인 18살의 황남도 내기 홍혁성동무...

정말 비통함을 참을수 없으시였다. 끝내 곁을 멈추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부도 크고 위훈을 세우려는 꿈과 희망으로 가슴 불태우며 복부의 나날을 보낸 용사들과 영웅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신결맹글 웃으며 떠난 아들들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린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이른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같이 신음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수호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지만 용사들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우리곁을 떠났것을 생각하면 참이 오지 않는다고 비분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렇듯 불같은 혈육의 정을 가슴에 안고 계신 그이시였기에 희생된 용사들의 끝없는 모습이 영생의 빛을 뿌리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감동깊은 사랑의 전설을 수놓으셨던가.

용사들의 사진을 위해 몸소 여러차례나 현장에 나오시어 사진현상작업을 구제적으로 보아주시고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부족점들을 바로잡아주시면서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사진들을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품을 들고고 정을 기울여 만든 용사들의 사진이 돌사진으로 묘비들에 고착되었을 때에는 현지에 까지 나오시어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잊지 못할 전우들과 마음속대화 를 나누시는 최고사령관동지시였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용사묘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비쳐드는 묘를 이우도록 바라보시며 이렇게 용사들을 안장하고싶고 한결 마음이 놓인다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묘비에 있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 아 한다고 하시면서 이 동무들의 이름은 내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넣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소! 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세상에는 사랑과 의리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수없이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최고사령관이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용사들을 위하여 몸소 묘주가 되어준 그런례는 일찌기 없었다.

용사들의 묘주, 그것은 이 나라 천만전사들의 영원한 정치적생명의 보호자가 되여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도덕의리외의 최고정화이다.

희생된 련사들에게 최고일청년영예상을 비롯한 높은 급의 국가표창을 하고 청년동맹원들에게 그처럼 소원하던 조선로동당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안겨주며 유가족들에게 애국렬사증을 수여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대해 그이의 존함이 새겨져 빛나는 용사묘비가 말해주고있었다.

나는 천연색으로 잘 만든 희생된 군인들의 사진을 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싸서 유가족들에게 추도록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희생된 용사들을 붉은 당기폭과 더불어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품을 《묘주》라는 두 글자가 응원으로 전하고있었다.

우리는 용사묘위에 있는 용사묘비앞에 다시 서



위 대한 동지애의 정 가슴깊이 새기며

혁명일화

눈을 뜬 멋진 사진

희생된 동해의 해군용사들은 오늘도 사랑하는 군항의 잠룡한 언덕에서 조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보고있다.

묘비에 돌사진으로 고착된 그들의 모습은 부모들과 전우들과 처음 보는 생인의 가장 훌륭한 초상화이다.

이 사진에는 참으로 감동깊은 사연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휘관과 병사는 다같은 최고사령관의 귀중한 전우들입니다.》

지난 11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의 묘를 돌아보실 때였다.

용사들의 돌사진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사진이 잘되었다고,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하시며 격정을 애써 누르시던 그이께서는 리은철동무의 묘비앞에서 곁을 멈추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묘비에 손을 얹으시고 돌사진을 보시며 특별히 품을 들어 그의 사진을 만들도록 하던 때가 생각나시는데 이 동무는 눈을 감은 사진의 원본이 올라왔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놀라움과 호기심이 비친 눈길들이 그의 돌사진으로 향하였다.

나이런 해병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며 감격이 겨워 울먹이는 눈빛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어떻게 눈을 감은 사진이 이렇게 생동한 모습으로 재현될수 있었는가.

결코 현대과학기술의 산물만은 아니였다.

지난 10월 중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희생된 용사들의 묘비들에 돌사진을 붙일때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면서 그들의 사진을 올려오도록 하시였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희생된 용사들의 사진을 플라그이께 보고드리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무리 작은 사진이라도 좋으니 원본을 올려보내라고 하시는데 사진이 없었다.

부대지휘관들은 난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진들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화면의 질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도 문제였지만 보다 안타까운것은 겨우 찾은 리은철동무의 사진이 눈을 감고 찍은것밖에 없었던것이였다. 강원도 안변군에 고향을 둔 그는 군사부무의 나날을 거니나 하면서 보내다나니 부대에 남긴 다른 사진은 없었다.

하는수없이 부대지휘관들은 눈을 감고 찍은 리은철동무의 사진원본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그대로 보고드리었다.

애석한 심정을 안으시고 희생된 용사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눈을 감고 찍은 리은철동무의 사진에서 시신을 멈추시였다. 자기의 전투임무수행중으로 병원이기도 한 함선과 함께 희생되다니 변변한 사진 한장 제대로 남기지 못한 19살 용사에 대한 생각이 그이의 가슴을 몹시도 쓰리게 하였다. 그럴수록 생을 마치는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이 맡겨준 전투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였으며 총잡은 병사의 진정한 삶의 보람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해군용사들의 위훈을 온 세상에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내세우시려는 불같은 마음이 더욱 강렬해지시였다.

이우도록 사진을 보시며 생각에 잠겨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어 눈을 감은 군인의 사진이 올라온데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사진에서 지난해에 이 부대를 찾았을 때 군인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에서 이 동무의 사진을 찾아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 사진들에는 그이께서 선군혁명영도의 길에서 영원한 동지관계, 전우관계를 맺으신 사랑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고착되어있다.

부대의 지휘관들이 그처럼 찾지 못해 속을

씩어린 리은철동무의 눈을 뜬 사진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간수하고계신 기념사진에 의하여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동해의 해군용사들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전투임무수행의 길에서 온전한 유품도, 사진 한장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선군령에서 만나신 그들의 끝없는 모습을 소중히 간직하고계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시였던것이다.

력사에는 군령도자와 병사들사이의 류타든 관계를 전하는 일화들이 많았어도 우리 나라에서처럼 최고사령관이 자신께서 찾아하신 기념사진에서 떠나간 병사의 모습을 가슴에 빛내준 례는 일찌기 없었다.

기념사진의 리은철동무의 모습은 원래 몹시 작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모들도 인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그 사진에 술한 품을 들고고 지성을 기울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리은철동무의 돌사진을 보시며 그 일이 잊혀지지 않았듯 그 자그마한 사진으로 이렇게 눈을 뜬 멋진 사진을 만들 어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만들어 보내주도록 하신 동해의 해군용사들의 사진 하나하나마다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소중히 깃들여있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자신의 진정한 혁명동지, 생사를 같이할 혁명전우로 여기시어 후대준 정과 열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적의리에 의하여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가장 훌륭한 멋쟁이군인의 모습으로 조국정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흔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보고 눈을 감았다 고도 한다.

동해의 해군용사들중에는 눈을 감은 사람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눈을 뜬 사진을 찾아주시신 리은철동무를 비롯하여 그들은 오늘도 자기들의 제위가 어려있는 군항과 군무생활을 함께 하던 군인들의 모습, 묵묵히 지켜 조국의 바다를 늘 바라보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에서 영원한 군사부무의 길을 걸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우들은 이렇게 생애의 정점을 빛내인다.

본사기자

이렇듯 불같은 혈육의 정을 가슴에 안고 계신 그이시였기에 희생된 용사들의 끝없는 모습이 영생의 빛을 뿌리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감동깊은 사랑의 전설을 수놓으셨던가.

용사들의 사진을 위해 몸소 여러차례나 현장에 나오시어 사진현상작업을 구제적으로 보아주시고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부족점들을 바로잡아주시면서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사진들을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품을 들고고 정을 기울여 만든 용사들의 사진이 돌사진으로 묘비들에 고착되었을 때에는 현지에 까지 나오시어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잊지 못할 전우들과 마음속대화 를 나누시는 최고사령관동지시였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용사묘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비쳐드는 묘를 이우도록 바라보시며 이렇게 용사들을 안장하고싶고 한결 마음이 놓인다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묘비에 있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 아 한다고 하시면서 이 동무들의 이름은 내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넣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소! 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세상에는 사랑과 의리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수없이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최고사령관이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용사들을 위하여 몸소 묘주가 되어준 그런례는 일찌기 없었다.

용사들의 묘주, 그것은 이 나라 천만전사들의 영원한 정치적생명의 보호자가 되여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도덕의리외의 최고정화이다.

희생된 련사들에게 최고일청년영예상을 비롯한 높은 급의 국가표창을 하고 청년동맹원들에게 그처럼 소원하던 조선로동당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안겨주며 유가족들에게 애국렬사증을 수여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대해 그이의 존함이 새겨져 빛나는 용사묘비가 말해주고있었다.

나는 천연색으로 잘 만든 희생된 군인들의 사진을 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싸서 유가족들에게 추도록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희생된 용사들을 붉은 당기폭과 더불어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품을 《묘주》라는 두 글자가 응원으로 전하고있었다.

우리는 용사묘위에 있는 용사묘비앞에 다시 서

이렇듯 불같은 혈육의 정을 가슴에 안고 계신 그이시였기에 희생된 용사들의 끝없는 모습이 영생의 빛을 뿌리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감동깊은 사랑의 전설을 수놓으셨던가.

용사들의 사진을 위해 몸소 여러차례나 현장에 나오시어 사진현상작업을 구제적으로 보아주시고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부족점들을 바로잡아주시면서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사진들을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품을 들고고 정을 기울여 만든 용사들의 사진이 돌사진으로 묘비들에 고착되었을 때에는 현지에 까지 나오시어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잊지 못할 전우들과 마음속대화 를 나누시는 최고사령관동지시였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용사묘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비쳐드는 묘를 이우도록 바라보시며 이렇게 용사들을 안장하고싶고 한결 마음이 놓인다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묘비에 있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 아 한다고 하시면서 이 동무들의 이름은 내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넣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소! 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세상에는 사랑과 의리에 대한 감동깊은



계승자들이 드리는 숭고한 경의

시묵을 조국과 병사

희생된 용사들은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였다. 이곳 부대지휘관들은 구잠함 233호 지휘관들과 해병들이 희생된 후 그들의 시신과 유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군항에서 군무생활을 하다보니 사품도 남는것이 없었다. 다행히도 군관 백철룡동무와 사관 정명성 동무가 사용하던 수첩을 다른 동지들에게 맡겼던것이 나타났다. 그이들은 쓴 시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해병들이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자작시가 다 말해주고있다. 아래에 시의 일부를 소개한다.

영웅전사들 웃으며 적진속에 뛰어들것이지 아니나

그대여, 청춘의 사랑도 가정의 행복도 조국의 통일변역속에 있거니와 나의 사랑 그대 위해 조국을 위해 웃으며 결전장에 뛰어들리라

총포란 비발치는 결전장에 적들의 고향소리, 비명소리 높을제 쓰러진 전우들의 모습 돌아오지 못한 전사들의 명령에서 머릿속이라

현명군과 울리고 혁명의 함성 높은 곳에서 나는 웨치리라 조국을 사랑했다고 그대를 사랑했다고

비록 육체는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전사의 생애는 영생하리라 조국이 기억하는 금별의 위훈속에 영원히 그대와 함께 서있으리

① 조국과 사랑

백철룡(군관)

조국을 떠난 사랑, 사랑이 아니거니 그 조국속에 전진하는 사랑 그 조국속에 투쟁하는 사랑 그 조국속에 영생하는 우리들의 사랑이여

머나먼 항해길에 오를 때면 멀어지는 조국의 땅, 산과 들은 인민의 성스러운 부락을 담아서 있고 푸른 하늘에 비친 저 노을은 바래우는 조국의 붉은 손수건인가

병사의 참된 사랑, 그것은 곧 조국 이거니

② 바다

정명성(사관)

너를 조금이라도 흐리게 한다면 바다여 나는 용서치 않으리라

영웅해병의 드세찬 강타로 바다속깊이 수장해버리리라

원수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③ 나의 함이여

정명성(사관)

사랑하라 동무들이여, 나의 함을 사랑하라 장군님 모신 나의 함 원수님 모신 정다운 나의 함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 나의 함이여

④ 나의 함이여

정명성(사관)

원수의 아성을 죽창쳐버리며 영웅해병의 본때를 보이자! 용된 평장우에 해군기 펼칠 때며 최고사령관동지를 승리의 보고 올리자

⑤ 나의 함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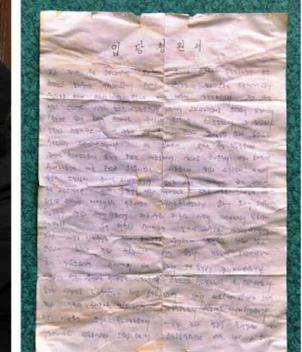
정명성(사관)

원수의 아성을 죽창쳐버리며 영웅해병의 본때를 보이자! 용된 평장우에 해군기 펼칠 때며 최고사령관동지를 승리의 보고 올리자

⑥ 나의 함이여

정명성(사관)

원수의 아성을 죽창쳐버리며 영웅해병의 본때를 보이자! 용된 평장우에 해군기 펼칠 때며 최고사령관동지를 승리의 보고 올리자



사진의 입당청원서는 구잠함 233호의 희생된 군의 김철윤동무가 남긴 유품이다. 몇해전에 조선로동당 당원의 영예를 지닌 그는 입당할 때 당기앞에 다진 맹세대로 한생을 살기 위해 당원증과 함께 항상 입당청원서를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었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이 어떤 사상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인가를 이 한장의 입당청원서가 말없이 전해주고있다.

용사의 순결한 당적립심과 당과 수령에 대한 깨끗한 충정, 위훈으로 수놓아진 길지 않은 한생이 담긴 입당청원서, 누구나 용사가 남긴 입당청원서에 자신을 세워보리라.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고귀한 넋으로 자기의 당생활을 깨끗하게 수놓으리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누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위협하는가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행정명령 12398호에 선언된 국가긴급상황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전혀 없이 중대한 위협을 준다고 하면서 1994년부터 매년 이런 논의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전파에 관련된 국가와 개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재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원조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무기판매를 금지하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전파를 운운하며 우리 공화국을 걸고 드는데 이다.

미국이 우리의 그 무슨 《위협》나발을 불어대는것은 별로 새삼스러울것이 아니다. 우리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계획》이 미국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는나,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공격용무기를 대우모적으로 갖추고 《대량살상무기전파에 관여》하고있다는나 루니 하는 협담들을 미국이 늘어놓는것은 이미 알려진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미국본토를 《불안》과 《위협》속에 불안하다는 소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수 있을것이다.

미국으로 말하면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나라이다. 군사비지출만 보더라도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군사비를 합친것보다 더 많다. 지구상에서 미사일과 핵무기를 비롯한 공격용무장장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있고 세계도처에 무력을 배비해놓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저들 스스로 《최강을 자랑하는 군사력》을 가지고있다고 으스대는 미국이 평토도 작고 인구가 적지 않은 우리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있다고 떠들어야

그것을 끌어 들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인민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미국은 이미 지난 조선전쟁때부터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하 여왔다.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전후에 더욱 가중되었다.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어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옮겨놓기로 결정하였다. 1957년에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으로 로부터 남조선에 반입, 배비된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핵무기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었다. 남조선은 1970년대 중엽에는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었다. 미국은 《핵태세보고서》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을 핵전제공격명단에 올려놓았다. 우리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것을 명문화한 전쟁문서까지 짜 놓았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핵전제공격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은 최대의 핵위협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우리를 핵공격대상으로 삼고 핵전제공격수단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은 전략핵무기들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에 들이치는것을 레사로로 일로 여기고 있다.

핵무기전파의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핵무기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지만 지구상의 핵무기는 철폐되는 커녕 그 파괴력이 훨씬 더 커졌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국제적인 핵군축의 한에 배치되던 핵무기중장핵동을 강행하여 추진되던 《우협》이 《핵무기금지조약》을 맺어대지않고 핵무기를 세계도처

전락실현의 기동으로 삼고 방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새로운 핵무기들을 끊임 없이 개발, 생산하며 그 현대화를 다그쳐왔다. 미국은 방대한 핵무력을 세계 여러 지역에 배치해놓고 자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핵전제공격기동을 공공연히 드러내보이고있다.

핵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면서 세계적인 핵전파금지체제를 파괴하는 주범은 미국이다.

미국이 《북조선이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며 그로 하여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고 떠들어대는것은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세계에서 최대의 미사일대국인 미국은 핵미사일들을 본토와 세계도처에 배치해놓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압력과 위협을 일삼고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 및 미사일무기를 가지고있는 미국이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은 그야말로 불공평을 든자가 불이냐 하고 소란을 피우는것과 같은 행위이다.

미국이 제출한 미사일방위체계 《세계를 구원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있다. 《》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북조선 등의 미사일위협》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위체계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하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미사일이 로씨야에 《위협》으로 되며 따라서 자들의 미사일방위체계가 위협이 로씨야를 반대하지는것이 아니라 《북조선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있다.

미국이 다그치고있는 미사일방위체계는 그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다른 나라와 지역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허구적인 우리의 《위협》을 걸고 미사일방위체계를 추진하고있는 목적은 우선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더욱 위협하고 임의의 시각에 미사일을 동원하여 우리의 전략적지역들을 걸고에 제압하는 방법으로 압살하자는것이

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위협》을 가정사실화하여 세계도처를 노린 미사일방위체계구축행동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미사일방위체계를 기어코 수립함으로써 일국화에 도전하는 대국들을 제압하려는데 미사일방위체계구축의 주요목적 이 있다.

미국은 자들의 북핵전쟁연습은 문제시될것이 없는데 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우리 군대의 군사훈련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위반하는것으로 된다는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 이것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미국이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하여 진부하게 늘어놓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세계경제패권실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하고있다. 여기에서도 미국은 조선반도에 특별한 전략적의미를 부여하고있다. 조선반도를 장악하면 동북아시아를 장악할수 있고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전세계를 손에 넣을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바로 이로부터 미국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광고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자들의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며 나아가서 우리를 핵으로 압살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핵 및 미사일위협》설에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미국이 우리 핵공격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쟁억제력에 신봉을 끈 두세울 필요가 없다.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부러짐은 적대적의식과 거부적반응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불안이 빠져있다. 미국의 피해망상증은 그들 스스로가 몰아온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걸고 자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은 논을 그만두어야 한다.

절세의 위기에 대한 매혹과 환멸

복잡다단했던 20세기는 세력의 흐름과 함께 멀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찬란한 태양의 역사를 심장속에 더욱 소중히 품어안고있다.

침략과 약탈, 지배와 예속으로 수난많은 역사를 영영 끝장내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위대한 한생을 바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린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해방과 자주위업실현에 얼마나 지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는가 하는것은 그이에 대한 세계의 뜨거운 호모와 칭송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1960년대에 있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진보적인류의 존경과 호모성이 얼마나 열렬한 것인지를 보아주려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블록국가담오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동주의 10총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주체 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도착하신 다음날 이 나라에서는 우리 수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진행할수 없다고 하면서 두차례나 미루던 립시인민협상회의 제3차회의가 비로소 수령님의 참석하에 진행되었다.

그때 인도네시아에는 반동회

의 10총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국가수반들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고위급대표단이 와 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사람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자기 나라의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는 회의장에 모시었다.

이날 수카르노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에서처럼 자립적민족경제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이것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각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의 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다가도 자주 몸을 돌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김일성각하, 그렇게 길일성각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셨다.》

이것은 우리 수령님에 대한 수카르노대통령의 무한한 존경과 호모, 기대의 발현이었다.

그는 또한 우리 수령님께서 보고식물원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새로 육종한 꽃에 그이의 존함을 모셔 《김일성각하》로 명명하여 올리면서 《김일성수상의 권위에 비하면 조선의 땅덩어리가 너무 작은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수상각하는 세계를 움직이시니 세계를 가지고 계시는것이냐 다름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것을 정치적대상으로 내세웠던 수카르노대통령이 우리 수령님을 칭송하여 타진 심장의 토로는 세기의 대성인에 대한 전인류의 매혹과 정의의 반영이었다.

정녕은 세계가 우리 수령님께 매혹되었고 그이의 위인상과 절대적인 권위에 머리를 숙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정말

기쁘시고, 우리 수령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니시고 최대의 존경을 받고계신다고, 수령님께서 위대하시기에만 우리 조선도 빛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해와 달이 홀려 열광의 환호성과 호모심으로 끓어넘치던 력사의 순간순간들은 아득히 지나갔지만 오늘도 위인칭송의 메아리는 끝없이 울려지고 있다.

우리 수령님의 탄생 101돐을 맞으며 따뚜기스탄공산당 위원장, 파키스탄로동련맹 총서기,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그리고 영국군공정적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 스위스 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등 정계, 사회계, 사학계, 단체인들은 담화, 성명들을 지어 20세기를 명실공히 김일성추수의 세기라고 하면서 력사에 전무후무한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행사에 열렬히 칭송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스기록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각하는 진보적인류의 다름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

태양의 열과 빛이 끝이 없듯이 세계는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을

는 잊지 못한다.

력사에 알려지고 인류가 체험한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그 위대함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줄기차게 전진하는 세계자주화의 흐름과 함께 새기 새기를 이어 더욱 열렬해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매혹과 호모심은 더욱 뜨겁게 불분되고 있다.

리 철 혁

로씨야 방 송 미국의 철면피한 처사 조소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최근 전자도청행위 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과 배격을 모면해보려는 미국의 철면피한 처사를 조소하였다.

방송은 전자도청행위의 주범인 미국이 갑자기 전자도청을 막기 위한 유엔결의안토의에 참가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밝히면서 그와 관련한 로씨야연방방의 회의원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도적이 도적이야》 하고 소리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로씨야에 대해 불거진 문제의 파문을 줄여보려 하고있다. 바로 스노우멘때문에 미국이 세계적판도에서 자기 동맹국들을 감시하고 그 동맹국들은 자기 공민들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던것이다. 이것은 인권현장, 해당 나라들의

법, 개인자리에 대한 법을 관용하게 위반한것으로 된다. 그래서 저들도 정량행위를 반대한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앞에서 체면을 유지하려 하고있는 것이다.》

방송은 미국이 자국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가 친구이든 적이든 가리지 않으며 도덕이나 법도 인중에 두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자연재해

— 소말리아의 동북부지역에 최근 열대성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컸다. 폭풍으로 11일현재 약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었으며 전력망과 통신망이 마비되고 고기배들이 파손되었다. 피해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 뱀의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10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태풍으로 11일현재 13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하였으며 50만명이 긴급소개되었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 호르바즈카에서 11일 강풍이 휩쓸고 피해를 입었다. 강풍으로 수도에서 살림집들의 지붕이 파손되고 나무들이

넘어졌으며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교통신이 마비되었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 필리핀에서 최근에 휩쓴 강



필리핀에서 태풍 피해

물가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할 입장 표명

베네수엘라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13일 물가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가조절에 관한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되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통해 대중이 상품과 봉사의 공정한 가격을

달보받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내부불순세력들이 물가인상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비방중상을 일삼고있는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그는 물가통제 투쟁에서 정부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미군기지폐쇄를 공식 통보

끼르기즈스탄이 14일 마나스 미공군기지를 폐쇄한다는것을 공식 통보하였다.

이날 이 나라 외무상이 자기

체육의 상업화가 지연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여러 체육종목들이 사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바로 럭기가 그 불운한 운명에 빠져들었다고 볼수 있다.

이런 경기대회뿐이 아니다. 영국선수들은 1896년에 진행된 제1차 올림픽경기대회 럭기종목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후 럭기와의 관계가 이에 끊어지고 말았다.

미국남자럭기선수들이 마지막으로 받은 올림픽금메달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인 1960년 로마에서였다.

에스파냐 럭기선수들은 한번도 올림픽금메달을 쟁취하지 못하였다 한다.

이런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체육강국》들이 오래동안 럭기종목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

실질적위협으로 된다고 변명해나서고있다.

하지만 로씨야는 군사훈련을 빈번히 벌리는 나토가 자기의 전략적이익을 해친다고 하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에서 부천대통령의 지도밑에 항공우주방어군, 해군 및 장거리항공대의 검열훈련이 진행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불의에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란도미사일발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반항공제와 미사일방위체계가 가동되었다. 또한 이날 바렌즈레와 오토르크해수역에서 핵잠수함인 《브라스크코프》(북한함)과 《성 계》(북한함)가 가동되었다.



한시적인 위기에 처한 미국의 응당한 조치

나토와 외사외조약 기구라는 두 군사블럭의 위협한 대결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냉전의 불씨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7년간에 걸친 발트해연안지역에서 진행된 군사훈련을 진행한 사실로도 그것이 설명되고 있다.

최근에도 나토는 에스도니아에서 군사훈련을 맹렬히 벌려놓았다. 나토의 성원국인 에스도니아는 로씨야의 위협에 대처하여 3개의 발트해연안나라들과 연합하여 2016년까지 나토 레투리안에서 독자적인 신속한 응우력을 창설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나토는 이번엔 성명을 발표하여 대 규모군사훈련이 로씨야를 겨냥한다는것이 아니라 정상적인것이며 아프가니스탄작전이 종결됨에 따라 이러한 군사훈련들이 앞으로 계속될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주도의 나토가 겉으로는 로씨야와의 《동반자관계》를 운운하지만 실지로는 로씨야를 잠재적인 적수로 간주하고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압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사훈련들을 벌리고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나토가 노리는 가장 큰 목적은 로씨야를 전략적으로 압축하여 더는 대국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았다.

파제의 일은 제쳐놓고라도 최근 나토는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더욱 바짝 좁히고있다.

7년간에 걸친 발트해연안지역에서 진행된 군사훈련을 진행한 사실로도 그것이 설명되고 있다.

최근에도 나토는 에스도니아에서 군사훈련을 맹렬히 벌려놓았다. 나토의 성원국인 에스도니아는 로씨야의 위협에 대처하여 3개의 발트해연안나라들과 연합하여 2016년까지 나토 레투리안에서 독자적인 신속한 응우력을 창설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나토는 이번엔 성명을 발표하여 대 규모군사훈련이 로씨야를 겨냥한다는것이 아니라 정상적인것이며 아프가니스탄작전이 종결됨에 따라 이러한 군사훈련들이 앞으로 계속될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주도의 나토가 겉으로는 로씨야와의 《동반자관계》를 운운하지만 실지로는 로씨야를 잠재적인 적수로 간주하고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압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사훈련들을 벌리고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나토가 노리는 가장 큰 목적은 로씨야를 전략적으로 압축하여 더는 대국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았다.

파제의 일은 제쳐놓고라도 최근 나토는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더욱 바짝 좁히고있다.